

[10] 임 수 겸

자는 익지, 호는 갈곡, 태종 9년 기축 10월 18일생. 전라감사, 성균관 사성, 호조참의, 부제학등 많은 관직을 거쳤다.

이 분은 조정에서 호조참의한 벼슬을 하시던 중 아산군 도고면 화전리 1구에 내려오셔서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사시고 계시던중 임금께서 빨리 조정으로 돌아와 정사를 돌보라는 교지를 말과 함께 보내시었다.

조정으로 돌아가 조정에서 일하고 계셨을 때의 일이다.

사랑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 절친한 친구 하나가 찾아왔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중 친구가 하는 말이 어제밤 도둑 한명이 담을넘어 들어왔다가 하인들에게 잡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갈곡은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아도 무슨 까닭이 있는것 같아 직접 도둑을 만나보기로 했다.

갈곡은 도둑을 만나 무슨일로 하여 남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느냐 하고 도둑에게 묻자 도둑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아랫마을 사는 가난한 집의 자식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병환이 나서서 쌀밥과 고기를 잡숫고 싶다고 하셔서 구할길이 없기에 그만..... 하고는 울기 시작했다.

문득 갈곡은 도둑이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 그 도둑이 돌아간 뒤 갈곡은 하인을 시켜 쌀 몇가마니와 고기를 보내 주었다.

그뒤 도둑이 찾아와 다시는 도둑질을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의 소행은 나쁘지만 부모를 위하는 효심에는 갈곡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으며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 정신은 위정자이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충에 바탕을 둔 애민정신이요 동포애가 아닌가 한다. 효심에 찬 도둑을 벌하여 그 가족과 그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며 본인에게 더 큰 불효를 짓게하기 보다는 그 한사람을 도와주어 한 가족을 구하며 효도할 수 있게 한것은 이분의 도량이며 도둑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벌보다 용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